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9. 14.(수)	배포 일시	2022. 9. 14.(수)
담당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왕식 (061-280-1640)
		담 당	주무관 윤민호 (061-280-1641)

추석 연휴, 서·남해안 연안여객선 13만 2천명 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전년 대비 9% 증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에 따르면 추석 연휴 특별수송 기간(9.8~12) 동안 전남 서·남해안* 지역 여객선 이용객은 13만2천 명, 차량은 3만 6천 대로 지난해 대비 각각 9%,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광, 무안, 신안, 목포, 진도, 해남, 완도, 강진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귀성객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고향을 찾고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 제주, 홍도 등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목포권 이용객은 7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했다. 특히 주요 관광지인 제주와 홍도 노선의 이용객은 13천 명,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 17%가 증가했으며 목포권 전체 이용객의 약 30%를 차지해 연휴를 맞아 가족단위 관광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권은 5만7천 명으로 전년 대비 3%가 증가했으며 주요 항로별 실적은 땅끝-산양 1만9천 명(8%↑), 화홍포-소안 1만2천 명(7%↑), 당목-일정·서성항로 1만3천 명(2%↑)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수송수요 증가를 대비해 증선과 증회 운항했음에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원활한 수송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섬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객선 운송과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